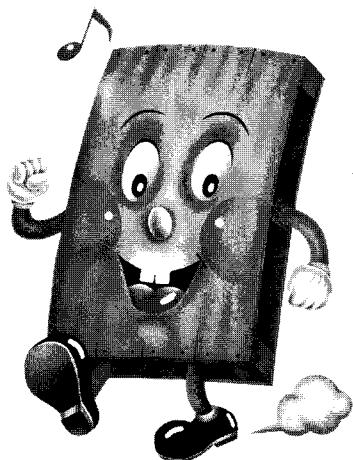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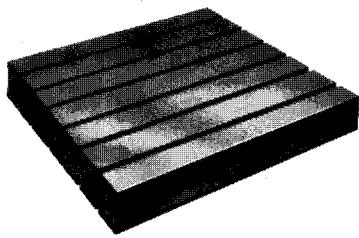
파렛트 풀 시대의 개막

파렛트규격의 포장표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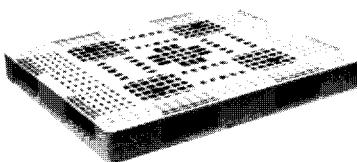


1985년 “파렛트 풀 시대의 개막”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하여 현재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파렛트풀(주)는 RENTAL방식의 파렛트 풀(PALLET POOL)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국내유일의 회사로서 KS규격 표준파렛트(T-11형 1100mm × 1100mm)를 중심으로 전체 파렛트 110만매를 보유하여 석유화학업계, 식품업계, 생활용품업계, 건축자재업계, 비료업계, 시멘트업계 등 전 업종에 걸쳐 8000여 기업에 파렛트를 투입하고 회수 관리하는 전국적인 Network로 파렛트 풀 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류합리화에 혌신하고 있다.

파렛트 풀 시스템은 각 기업의 물류 COST DOWN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은 물론 목재, 플라스틱 등의 자원재활용도 제고시켜 우리나라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 물류표준화, 공동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



- 규격 : 1300mm × 1100mm
- 색상 : 초록색
- 재질 : 목재, 프라스틱



- 규격 : 1350mm × 1100mm
- 색상 : 연두색
- 재질 : 프라스틱

* 본 파렛트는 한국프렛트 풀 주식회사의 소유재산이며 KPP 한국파렛트 풀(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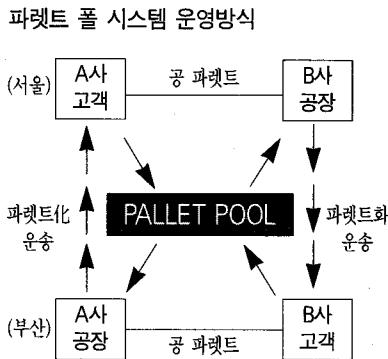
다. 또한 일본의 JAPAN PALLET RENTAL CO., LTD.(JPR), 대만의 TAIWAN PALLET RENTAL CO., LTD.(TPR)과 제휴하여 한국, 일본, 대만 3개국간의 ASIA PALLET POOL을 구축하여 파렛트풀의 국제화, 세계화시대를 성실히 열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4년 10월에 한국물류대상(하역 물류기기 부문)을 수상했다.

물류합리화를 위하여 파렛트 풀 시스템 개척

우리나라 산업계에 낙후되어 있는 분야의 하나가 물류관리이다. 각 기업활동의 수단인 물자(원자재, 제품)를 보다 저렴하고 능률적으로 포장, 하역, 운반, 보관, 수송하고 또 이를 시스템화하고 정보화하는 물류분야는 현재 기업경영의 중심과제가 되고 있다.

물류관리로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새로운 목표가 되고 있다. 이 물류합리화의 중요한 방법으로 화물단위화(UNIT LOAD SYSTEM)가 채택되어야 한다. 이 유니트 로드 시스템의 기본이 파렛트화이다. 그러나 불행하



게도 우리 산업계에서는 지금까지 파렛트가 단순히 화물보관시 깔판, 지게차 작업도구로써 공장 구내용으로만 사용되어 왔다. 원래 파렛트는 보관, 하역작업 및 수송에 이용되어 일관파렛트화가 이룩되어야만 물류 혁신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관파렛트화를 실현하는데 있어 파렛트 표준화와 회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일관파렛트하는 파렛트 공동이용 제도인 파렛트 풀 시스템으로만 가능하다.

KPP는 우리 산업계의 물류합리화를 위한 일관파렛트화를 이루는 것을 기업의 사명감으로 갖고 RENTAL 방식에 의한 파렛트 풀 시스템을 탄생시켰다.

KS표준파렛트를 사용해야

오래전 중국의 진시황제시절에는 화폐, 도량형, 거래단위 등과 함께 우마차의 바퀴넓이도 규격통일이 되어 있었다.

우마차 바퀴의 통일은 당연히 적재 함 넓이의 통일도 가져왔다. 국가차원의 조직적인 물류합리화의 효시이다.

덴마크나 스웨덴에서는 각설탕, 비누의 크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식

료품이나 잡화류의 봉지, 골판지 상자 등을 물론 창고기동의 간격까지도 국가 표준파렛트의 치수로부터 산출하고 설계의 기준이 되고 있다.

한국의 표준파렛트는 가로 1100mm × 세로 1100mm × 높이 144mm 규격의 T-11형 파렛트이다.

20여년전인 1973년에 KS표준규격으로 채택한 물류의 기준으로 선정된 표준파렛트이다.

따라서 T-11형 파렛트는 우리나라 산업계가 선택한 한국의 표준파렛트이다.

T-11형이 선정된 이유는 수송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수송수단의 주된 장비는 대형트럭(8톤, 11톤)의 적재함, 국제 해상 콘테이너(20피트, 40피트)의 내치수에 적합하다.

이 표준파렛트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고 한다.

첫째 각 하역 장소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나 트럭, 창고 등 물류기계나 설비 등의 표준화가 가능하다.

둘째 포장 규격 등 화물형태를 파렛트규격에 맞추면 화물수송에 일정한 기계하역이 보장된다.

셋째 파렛트에 호환성이 있어 수송을 통하여 여러 장소나 여러 기업이 파렛트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품질이나 규격이 일정하므로 안심하고 사용 할 수 있다.

물류의 선진화는

자기회사만을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다. 자사제품의 판매지역 소비지역의 여러기업에 자사제품소송후 공파렛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생각해야 된다.

파렛트풀은 한국 물류기술의 지역 격차를 없애는 파렛트 시스템이다. 1매의 파렛트가 화물을 바꾸어 가며 전 한국을 이동한다. 이것이 한국산업계의 물류합리화이고 물류선진시스템이다.

우리 나라의 제품수송은 왜 ORDER MADE가 아닌가? 수송의 경우 ORDER MADE는 비싸서 불합리한 방식이다. 평준화된 물류시스템에 의하여 수송형태가 단순하게 되고 비용도 내려 간다. 우리나라 전국 공토의 유니트치수는 T-11형 파렛트를 기준으로 하여 제정되고 있다. 전국공통의 유니트 로드 치수의 채용에 의하여 READY MADE의 수송으로 효율화를 계획해야 된다.

“수작업 하역, 등짐하역 등 인력 하역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며 “‘파렛트로 부터 날개 날개로 트럭 적재함에, 트럭 적재함으로 부터 구내용 파렛트에 옮겨쌓’ 하역풍경은 관리자의 지식부족때문에 발생한다”고 서병률사장은 강조했다.

파렛트 풀 시스템은 참가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각 회사별 파렛트 경비는 저렴해 진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렛트라면 분실을 걱정하는 기업도 저항없이 소송에 수용할 수 있다.

파렛트풀제도는 공공성이 있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에서 파렛트풀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한국산업계는 세계에서 물류비가 제일 비싼 나라가 되었다. 한국제품의 국제 경쟁력 저하를 막기위하여는 수송비의 절감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KS일관 수송용 파렛트의 이용으로 한국 물류계의 선진화를 이루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변준섭 기자

인터뷰 — 한국파렛트풀 서병률 사장

“포장인은 포장치수 표준화에 앞장서야”

파렛트 풀 시스템이란

파렛트를 표준화시켜 상호 교환이 있도록 사용함으로써 표준파렛트에 의한 물류공동화를 통하여 각 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하는 공동이용제도를 말합니다.

파렛트 풀 시스템의 종류에는 기업내 파렛트 풀 시스템(이하 PPS라 칭함), 거래 기업간 PPS, 업종(업계)별 PPS, 국제간의 PPS가 있으며, 운영방식에는 교환방식(유럽지역)과 RENTAL방식(한국, 일본, 호주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왜 기업마다 파렛트치수가 각각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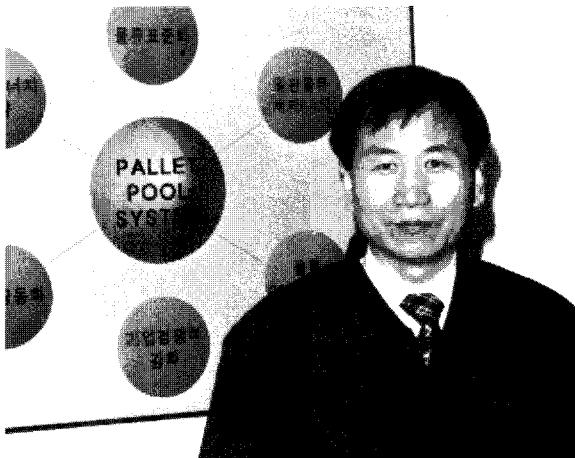
그것은 자사제품의 화물형태만을 생각하여 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파렛트를 공장구내에서 사용하는 하역, 보관의 도구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는 수송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파렛트는 연계 물류시스템으로 하역, 보관, 수송이 가능합니다.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렛트는 호주에서는 90%, 유럽각국은 80%, 미국 캐나다는 50%가 통일규격의 표준파렛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10%입니다.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풀 시스템과 포장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각 업계는 포장의 표준화를 하지 않을까요?

이윤때문에, 그리고 비용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현 업계는 안타깝게도 제품의 내용물에 치수를 맞춰 물적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 서울 농대 졸업
대우 중공업 지게차 영업파장
한국물류관리원 원장(1984)
1985년 KPP설립

은 하루 빨리 포장치수 표준화를 선전해야 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물류계몽운동을 1984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물류지도(物流之道)의 정신으로 200여명의 사원이 물류산업에 경진하고 있습니다. 이윤보다는 물류산업의 표준화에 중점을 두고 350억원을 투자하여 110만개의 파렛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20개의 집배소를 두어 파렛트를 회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물류산업의 활성화는 바로 포장의 치수가 표준화되는 것이 지름길이라 말하고 싶습니다.